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령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1097호 현대불교 17
2016년 5월 18일 (4월 12일) 수요일 / 불기 2560년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항상 부처님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내 마음이 영원한 오늘

질문 선법가 “부처님 오신 날도 영원한 오늘일세” 중에 “내 한마음 깨우치면 오늘의 내 마음이 영원한 오늘이요 부처님 오신 날일세.”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등행진을 하면서 이 선법가를 무심히 따라 부르다가 문득 “오늘의 내 마음이 영원한 오늘이요 부처님 오신 날일세.”라는 말이 뜻이 어려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름아름 느껴지기는 하는데 온전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가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어떠한 생각으로 이날까지 살아왔던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의 인등을 켜면서 꺼지지 않도록 하고 왔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일 년을 하루로 축소할 수 없다면 하루를 일 초로 축소할 수 없는, 영원한 오늘이라는 이 도리를 여러분은 잘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우리 마음과 말과 뜻을 한 번 더 다져보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법회를 하는데, 석사나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 부부들과 천주교인, 기독교인을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법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중 하나 기억나는 것이, 법회 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어서 그랬는지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기를 “부활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기 이전부터 생명은 있었으니 초초마다 부활절이 아니겠느냐. 여러분이 생각을 일으키는 대로 부활절이지 달리 부활절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항상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부처님께서 오신 뜻이고, 인등을 켜는 것이고, 또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작년의 초파일이나, 다가올 초파일이나, 내년의 초파일이나, 삼천 년 전 오늘이나 똑같은, 영원한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 부처님 오신 날이라 하면 그 나신 날을 기리기 위해서, 그 뜻을 배우기 위해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그 배우고 고마운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모두 이 마음을 조아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정해 놓았겠지만 부처님은 나신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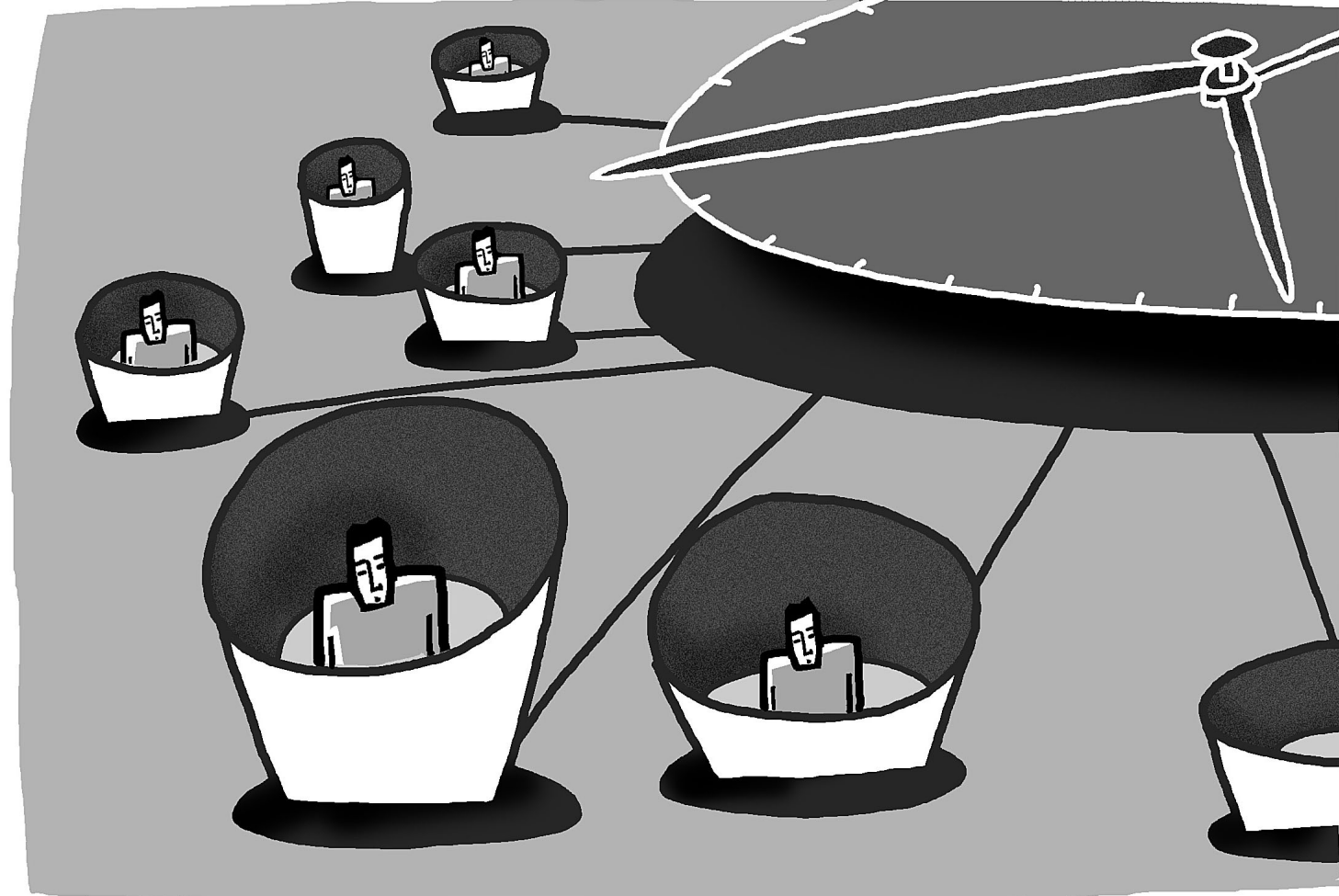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도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나 하면, 부처님 자체는 따로 생일도 없고, 따로 부처님이라는 이름도 없고, 우주 세계가, 전체를 비취 볼 때 여러분이 한 명이라면 그 한 명이 부처님이 다 되니깐,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항상 부처님이 결부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한마음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한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주간 법계에 우리가 같이 통하면서 같이 움직거리면서 같이 한자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마음이라는 것은 전체 우주와 더불어 같이 한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어느 한 종교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진리로서 일체와 더불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佛)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말하고, 교(敎)라는 것은 일체 만물만생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것이 없죠.

그렇듯이 우리들의 일상이 그대로 불법인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며 움직이는 것이 참선이며, 그 경계가 모두 공부할 수 있는 재료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며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일 년에 한 번 오는 사월초파일만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라, 영원한 오늘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내가 있으니 항상 부처님 오신 날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열반에 드신 적이 없습니다. 열반이라 함은 돌아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 항상 여여함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몸을 가지고 살아 있으면서 열반에 드는 도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초발심이 어찌 바른 깨침인지요
질문 초발심(初發心)이 곧 바른 깨달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삼보에 귀의하기로 마음먹은 지 오래 됐지만 아직도 겁삼

하지만 합니다. 그런데 초발심의 경지를 어찌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우리가 삼천 년 후나 삼천 년 전이나 그냥 오늘날인 것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빛깔도 없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히 믿고 진실히 놓는 작업을 할 때, 또는 진실히 구하고 물러서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자기가 아닌 자기와와의 만남의 소식을 얻을 수 있는 거고, 한생각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은 그렇지 못해요. 바깥으로 꾸달리고 모든 행동 말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초발심에 깨치지 못하는 것이지, 초발심이 십 년이 갔든 이십 년이 갔든 하루가 갔든 일 초가 갔든 돌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초발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음이란 한 찰나니깐.

그러니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동시에 뜻과 더불어 같이 진실하게, 물러서지 않고 믿고

놓을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십 년이 갔다 하더라도 깨달음이 있어서는 십 년과 일초와 맞먹습니다. 그러나 초발심이지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깨닫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먹고 행하고 말하고 뜻하고 모든 것이 결부되어 되는 것입니다. 이 컵 하나라도 그것이 빠지면 안 돼요. 결부됐으니까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생산이 된 거죠. 지수화풍 그 자체가 결부가 됐으니까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즉 바로 흙과 물로 개어서 바람에 말려서 불에 굽는 겁니다. 그렇게 인연에 따라서 한테 결부가 돼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컵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그냥 별로 볼 게 아니죠. 우주의 개공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빈 그릇이 나와서만 다가 아니라 바로 이 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먹어야 이 컵이 컵이라는 빛이 있는 거지, 담야 먹을 수 없다면 아무 빛이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깐 물 담아서 먹고 음료수 담아서 먹고 이렇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주 개공이 이 컵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초발심에 삼천 년이 갔다 하더라도 행하지 못한다면 초발심도 없는 것이고 행한다면 일초도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편안한 경계에 대해서
질문 주인공을 믿고 주인공에 모든 걸 놓아 가면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간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이 어느새 편안한 경계(境界)를 구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고 놓는 마음 가운데 편안한 경계를 좋아하는 마음이 깃든다면 잘못 가고 있는지요.

답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면 이 육체 안에 있는 중생들도 편안하기 때문이지요. 모두가 한데 뭉쳐서 놓을 수 있는, 주인공에게 놓을 수 있는 작업이 물러서지 않는 진실이라면 바로 그 마음은 한마음으로 돌아가니깐 편안함이 오고 끄달리지 않는 법이요.

그럼으로써 우주 전체는 근본 하나로 돌아가지만, 평등하게 돌아가지만 용도에 따라서 풀어 쓰는 정도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평등하게, 돌로 보지 말고 주인공에다 모두 일

18면으로 계속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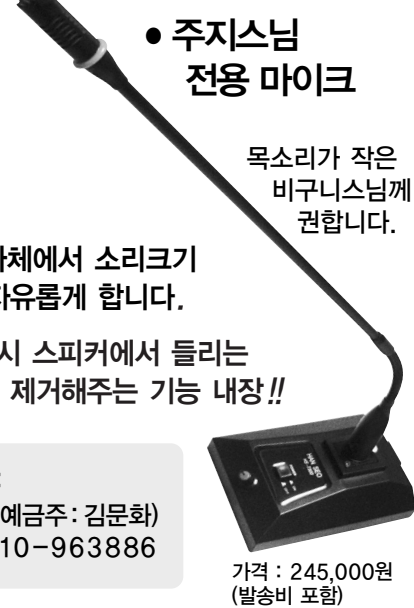
◆ 설치가격 : 2,250,000원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나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민화)
1002-610-963886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W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세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조제미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 헤드셋 1세트
· 사치저음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대 · CD기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내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자,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천도의 중요성”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빛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꿔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점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성지관음회
경기도 평주시 오폍을 오폍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물러서지 않고 진실하게 믿고 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7면에서 계속

임해서 봤을 때, 그리고 자기한테 용도에 따라 다가가는 그 모두를 건건이 거기에다가 놓고,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진실하게 가질 때, 하늘이 무너져도 거기다 거꾸로 놓을 수 있을 때, 죽고 사는 것을 탓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비로소 편안하면서도 그 모두를 커버할 수 있고 자유스러운 대권을 얻을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항상 얘기하던 거와 같이 진실하게,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놓고 진실하게 행하고, 진실하고 부드럽게 뜻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태세가 된다면 진실하게 구함도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깨닫는 소식도 얻을 것이더라는 얘기에요.

그러니 그 편안함, 편안함도 여러 가지겠지만 그냥 무조건 '옳다, 바르다! 죽기 아니면 살기!' 이라고 놓는 거는 믿고 놓고 편안한 것하고는 다른 거죠. 항상 얘기했듯이 모두가 내 스승 아님이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 진실로 그렇게 감응이 된다면 나 아님이, 내 아픔 아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한마음이라는 것이, 그거는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뜻이니까 그대로 거기에 맡기고 믿고 진실되게 가야 하는데, 믿지 않거나 설 믿는다면, 잘했을 때 '아! 감사하다' 이렇게 했더라도 다음에 가서 안 되면 아, 이걸 또 두루 묵이 돼 버려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에요. 그러니 선업 악업을 다 보라 이겁니다. 만약에 회사를 경영한다면 높이 놓을 사람은 높이 놓고, 얇게 놓을 사람은 얇게 놔야 일이 되지, 그 작업을 못한다면 어떻게 회사를 경영할 수 있겠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부처님 법에도 악업 선업을 다 놓고 배워야 돼요. 그거를 비유해서 한번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승진을 시켜 달라고 아주 정성을 지극하게 들었어요. 그것도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극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만 뒷걸음질치 돼 버렸어요. 그리고는 남이 그 자리에 와 가지고 월남을 가게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월남에 가서 그만 전사를 했어요. 그렇게 되고 난 뒤에 다시금 승진이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처음에 진실히 했는데 후퇴가 됐으니 어떻게 됐겠소? 그 믿음이라는 게 산산조각이 났겠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래도 뜻이 있으니까 후퇴가 됐겠지요.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악업 선업을 다 보라 하는 것은, 안 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다 하는 것인데 어떠한 까닭이나, 바로 그러한 까닭이다 이거죠. 자유인의 대권을 얻었다면, 불리하면 내려놓을 수도 있고 이익하면 올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이익하거나 해롭거나 올려놓을 줄만 안다면 그런

망하고 마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도, 후퇴할 때는 후퇴하고 전진할 때는 전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수능란한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지휘를 맡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어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부처님께서 자유자재하다는 뜻은 아픔을 똑같이 느끼면서 모든 것을 이익하게 이끌어 주는 것이지만, 얼른 쉽게 말해서 아주 권력을 남용하고 모든 일에 부정으로 가고 그러면 그냥 부정으로 가계끔 해 주는 겁니다. 자기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서 행해 봐야 '어이쿠!' 하고 그때 가서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려놓을 줄도 알고 올려놓을 줄도 알아야 자유자재의 대권을 얻었다 할 것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질문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림 그리는 일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참선하는 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림에도 물론 새로운 안목과 새로운 영역이 있는데 그림을 그릴 때

을 해서 그저 어디고 붓과 먹, 종이만 사 가지고 짚어지고 돌아다니면서 산하도 그리고 그냥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고 다니다가 어느 산중에 들어서니까 노인네 한 분이 딸을 잃고 혼자 두 다리를 쭉 뻗고 울고 있거든요. 아, 시골 초막집에서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을 끌어다 놓으면서 "아 참, 왜 우시느냐?" 하니까 자기 딸이 이렇게 나 혼자만 남겨 놓고 죽었으니 나는 어떻게 사느냐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살지 않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딸이 바느질품을 팔았는데, 인제는 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라고, 따님은 죽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고선 그날 저녁에 바로 큰 항아리가 종이를 붙여 가지고 아주 찢어지지 않게 만들어서 거기가 그림을 그렸습니까. 그 집 딸요, 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딸과 똑같이 그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심안으로서 그 딸을 착 놓고 보니까 어이구, 그 딸이 나오거든요.

서 그린다는 것을 꼭 믿으세요. 그렇게 자기 주인공을 꼭 믿으란 말입니다. 그러면 꼭 거기서 살 길이 나올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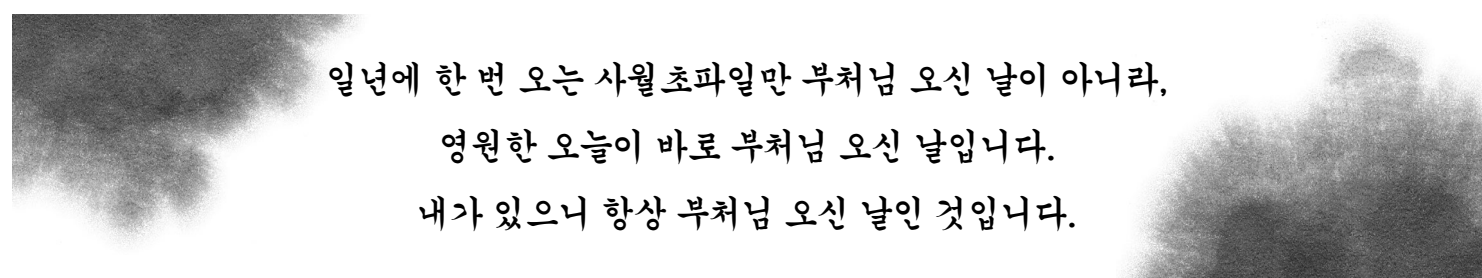
마음공부를 꼭 해야 하는 이유?
질문 저는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하루하루 큰스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살고 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천수경의 내용 중 "눈이 없어 관하고 관하고 또 부지런하오리니 가고 가고 돌아 돌아 모든 고난이 큰 뜻으로 모든 액난이 몰락 사라지이다, 사라지이다." 하는 내용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언제까지 이 공부를 해야 하나. 이 힘든 길에서 도망갈 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다잡으면서 저에게 주어진 이 고통의 현실이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이 마음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언제 그랬나 싶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이 마음공부가 아닌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오직 이 내면의 길에서 완

을 잘 써서 소화가 잘되면 걸림 없이 돌아가고, 모든 걸 재료로 알고 실재를 해서 체험을 한다면 마음의 발전이 되고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고, 과학적인 문제가 거론되고 창조력이 생기지마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내내 걸려서 무심의 50% 정신세계는 모르고 50% 물질세계만 알게 되니 그러면 걸려서 못 삽니다. 지금은 정신세계가 아니라면 안 되는 시대죠. 정신을 뺏기고 정신을 뺏어서 사는 시대가 아닙니까. 꼭 육으로 잡아먹어야 잡아먹히는 게 아니거든요. 정신을 뺏어 먹고 사니까 정신을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정신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분들이 아집과 아상을 가지고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없이 대업을 쌓고 내 가정이 부유하여 고생하지도 않는데 뭘 배운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보이는 세계의 물질적인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소견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지 못한다면, 쪽정이를 낚는 비이삭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실천에 옮길 수 없으니 사람이 되어 가지고도 사람 노릇을 못하는 격이나 같은 것이죠.

'왜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하나? 왜 이렇게 답답한가?' 하는 생각이 나오는 것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고 그 자리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나는 거니까 없애는 것도 그 자리 아닌가 하고 되물기세요. 이 세상에 답답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생각하기에 달렸어요. 누가 금방 죽는다고 해도 답답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실로 믿고 힘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답답할 게 없지만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방법 뭐죠. 그냥 배 안에 탄 중생들이 일어나서 아우성을 치면 배가 뒤집히고 말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배는 반드시 뒤집히고 말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는 떠나서 바깥으로 찾지 마시고,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바깥으로 찾았다면 부처님께서 '너는 고깃덩어리만 아는구나. 내 가죽과 내 뼈다 귀만 알지, 내 골수를 모르는구나.' 하시고는 눈을 감으실 겁니다. 진수를 바로 알아야 부처님의 형상은 내 형상이요 부처님의 마음은 내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며, 부처님은 형상으로 저렇게 앉아 계시지만 다 알고 난 뒤에는 형상으로 보이는 저 부처님이 나하고 둘이 아니라는 것까지 증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든 익을 때까지는 누구의 탓도 하지 마시고 일체를 자기 탓으로 돌리고 하심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남이 다 해 놓은 것 자기가 먹기도 하지만 먹는 반면에 바로 또 자기가 해서 남을 대접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년에 한번 오는 사월초파일만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라,
 영원한 오늘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내가 있으니 항상 부처님 오신 날인 것입니다.

어떻게 나 자신이 나로부터 벗어나서 거기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그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는데 사실 저의 그림이 잘 팔리지를 않아서 힘이 듭니다.

답변 어느 시골에서 떠꺼머리 총각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근데 나무를 태우면 숲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땅에다 항상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저녁나절인데 자기가 여자 생각이 나니까 여자를 그려 놓고 그냥 집에 가서 자고선 저녁나절에 나왔더니 아, 거기 예쁜 여자가 그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려 놓은 데서, 그래서 '내가 숲으로 그려 봤는데 이 그림에서 말을 하네.' 하는 동시에 그 여자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려 놓은 여자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그림 그릴 때나 살아나갈 때도 말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하지 말라.' 하고선 그냥 없어졌거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인생 살아나가는 것도 생각 안 하고 그저 가다가 보기 좋으면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총각은 그때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 지금으로 치면 미술이라고 하죠. 그림 그리기 시작

그래서 그 딸을 그대로 그렸어요. 그래서 큰 배를 하나 그려 가지고 거기 띄워 놔 놔단 말입니다. 그러곤 물도 그려 놓고 나무도 그려 놓고 처억 벽에다 걸어 놓고 하는 소리가, 여기서 딸이 저녁이면 나와서 항상 밥을 해 줄 테니 비밀로만 하라고, 내가 딸을 봤다가 딸이 이렇게 잘해 준다니까 이런 것을 비밀로 하라고 이렇게 그 그림쟁이가 일러 주고는 갔거든요. 그날 저녁부터 그 딸이 거기서 나와 가지고선 고깃국도 끓여 주고 뭐 밥도 해 주고 다 하고 그냥 또 새벽녘이면 거기로 싹 들어가고, 그러면 고만인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 그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기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무심과 유심이 들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심이라면 유심이고 유심이라면 무심입니다. 무심도 아니요 유심도 아닌 그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유심도 아니고 무심도 아닌 그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림 하나를 그린다 할지라도 산 그림이요, 글자 하나를 쓴다 하더라도 산 법이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내 손이 그리는 게 아니라 바로 진짜 참나 손이 내 손을 이용해

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마음공부를 꼭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누구나 다 그럴 이유가 있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이유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이유이기에 자기를 형성시킨 근본이 있어요. 형성을 시키는 데는 모든 게 합쳐져야 형성되기 때문에 부모의 정자 난자를 빌려서,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전부 같이 혼합이 돼서 형성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업식을 다스리면서 내 마음의 근본, 진짜 자기 뿌리로 생각을 하세요. 그 업식 속에서 나오는 것을 나오는 자리에서 되놓고 주인공만이 물리가 타지 않게 할 수 있고, 지혜를 내게 할 수도 있음을 믿고 믿기세요. 그 자리에 맞게 놓고 나오는 대로 되물려서 일임한다면 참자기가 발견이 돼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소화를 잘 시켜서 금세 먹는 대로 소화가 잘되면 그대로 여여한 거고, 어떠한 거든지 욕심을 많이 내고 먹으면 체해서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대변이 제대로 나가지 않게 되고 걸려서 죽습니다.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중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평생 위패 한 두분도 조성가능합니다.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바쁜 하루... 삭발할 때 상처없이 밀어지는 방법은 없을까?

머리결이 강해 고생하는데... 스님! 削髮면도 힘드셨죠! 이젠 안심하십시오! 스님 삭발전용 비누가 있습니다

스님 삭발용 편백비누 削髮快

편백임목오일 초정광천수 함유
 부드러운 삭발 피부손상방지 피부자극최소화

■ 구입 문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단재로 1961
 ☎ 043)296-7776 | 010-3280-7776